

오늘의 사건사고

무안 돈사서 불... 30마리 죽어

14일 오전 7시17분께 무안군 창계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개동 215㎡(추정)가 모두 타고 어미돼지 30마리가 죽었다.

출근길에 불길을 목격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돈사 주인에게 신고한 뒤 소화기 6개로 진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돈사 내 4개실 중 가장 안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무안=고비호 기자

영광 돈사 화재... 319마리 폐사

13일 오전 8시53분께 영광군 범성면 삼당리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12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돈사 6개동 가운데 분만실 1개동(396㎡)의 관별 소재 벽과 지붕 100㎡가 타다.

또 돈사 안에 있던 어미돼지 25마리와 새끼돼지 294마리 등 돼지 319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2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사 주인 남공(67)씨의 신고를 받은 영광소방서는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5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돼지분만에 쓰이는 기계 전원장치를 꽂아둔 벽면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광=류정호 기자

광주, 지난해 화재 줄어... 923건 발생

담배꽂초 방치 등 부주의 58.6%로 가장 많아... 재산 피해도 줄어
인명피해는 20% 증가... 소방본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 주력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923건의 화재가 발생해 36명의 인명 피해와 33억7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14일 집계됐다.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3.45%(33건), 재산피해는 10.5%(3억9800여만 원) 감소한 반면 사상자는 20%(6명) 증가했다.

원인 별로는 부주의가 58.6%(54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 19.1(177건)%, 기계 7.4%(69건) 순이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꽂초 방치가 36.5%(198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중

17.5%(95건),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가 각각 13.3%(72건)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주거 시설이 27.9%(258건)로 수위를 차지했고, 야외 14.4%(133건), 자동차 10.8%(100건), 음식점 10.4%(96건), 일 상 서 비 스 와 산 업 시 설 6.6%(61건) 등이다.

특히,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반면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부상자만 11명 발생해 주거용 건물 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주택화재 예방 홍보, 취약계층 대상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매년 화재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사상자는 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사망자 모두 안타깝게도 소중한 보급자리인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화재저감 대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광산소방서 '사랑나눔 안전관리 무상지원'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13일 사회취약계층 거주시설 2곳에서 소방안전점검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광산소방서 제공

법원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은 위법"

"징계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5년 경과 전까지 해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시효를 넘겨 징계처분을 했다'며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모 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2016년 1월20일 해당 군청에 A 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했으며, 이 통보는 같은 달 25일 도달했다.

같은 해 6월 관할 검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이를 군청에 통보했다.

군청은 같은 해 7월 군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사위는 '관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지난해 1월 군청은 전남도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A 씨를 강등처분했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전남도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정식 3개월로 변경했다.

A 씨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늦게 지급했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횡령한 것은 아니다. 횡령금액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군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군청은 '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부터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2016년 6월22까지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처분결과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가 A 씨의 마지막 업무상횡령(혐의) 행위가 있었던 2011년 1월2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0월31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A 씨에 대한 처분은 징계시효를 넘긴 뒤 이뤄진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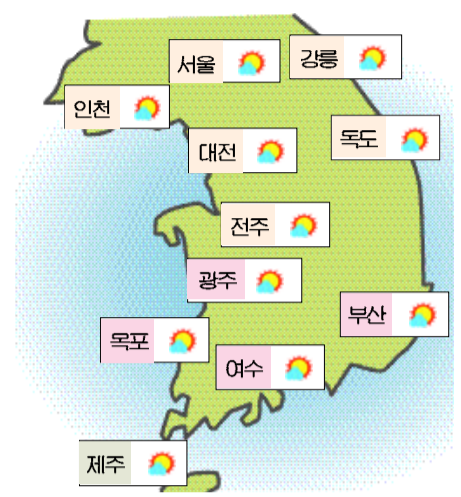
하림 새벽부터 아침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주간날씨

날짜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21일(일)
날씨						

기상청(보통) 국민염이 131명(주간기상청)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1-12	20
나주		1-12	"
담양		1-12	"
순천		1-12	"
영광		1-12	"
목포		1-12	"
무안		1-12	"
진도		1-12	"
여수		1-12	"
광양		1-12	"
고흥		1-12	"
완도		1-12	"
해남		1-12	"
장흥		1-12	"



서·남해 날씨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5-9	0.5-1.0
	면바다	동-남동	5-9	0.5-1.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5-9	0.5-1.0
	면바다	서-북서	5-9	0.5-1.0

광주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1위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발생 감소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검거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역 5대 범죄 발생은 2016년 1만5416건에서 2017년 1만3951건으로 9.5% 감소했다.

5대 범죄 검거율은 2016년(82.1%)에 비해 2017년(84.7%)에 2.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5대 범죄 검거율(78.8%)과 비교하면 5.9% 높았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최근 2년 연

속 살인·강도·성폭력 사건을 모두 해결했으며, 지난해 절도사건 검거율(72.5%)도 전국 평균(61.8%)을 크게 웃돌았다.

폭력사건 검거율도 90.3%를 기록, 전국 평균(87.9%)보다 높았다. 광주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형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힘쓴 점, 5대 범죄 사건 분석회의로 범죄 정보를 공유한 점,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처 방침에 따라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해경, 뱃길 끊긴 야간 섬지역 환자 긴급이송

기상 악화로 야간 뱃길이 끊긴 섬지역 환자를 여수해경이 잇따라 긴급이송했다.

지난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9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정박 중인 H호 선박에서 선원 김모(68)씨가 왼쪽에 손이 끼여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한파주의보와 높은 파도로 김씨를 이송할 여객선이 없자 해경에 신고를 접수했다.

여수해경은 인근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300t급 경비함을 급파해 김씨를 긴급 이송했다. 김씨는 고흥 나로도 축적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를 타고 광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신안=최 호 기자

건강한 우리사회 함께 만듭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

작사만 100억을 하나씩 사거나 할 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국민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웃을 위해 생명을 지키는 사안사건 실천한다!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연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실천 캠페인

-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
 비누로 손 씻기, 씻은 후 물로 씻기, 손 건조
 (손위생제 사용 금지)
- 기침할 때는 소매로 가리기**
 가림막 또는 손이 아닌
 휴지·수수건·옷소매로 입·코를 가리게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세요
-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에게 양보**
 위급한 환자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세요
- 병문안 가급적 자제하기**
 병문안은 꼭 필요한 시드에만
 병문안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므로 자제하세요
- 국·피계 덜어먹고 술잔 돌리지 않기**
 알레르기질환 때 국·피계 덜어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4대 개혁 100년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노동개혁 1시간만에 노사정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정대협,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